귀 대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흐름출판사에서는 조선시대 심문 진술 기록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전 90권(신국판)으로 국역 출판하였습니다.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00년 동안의 변란과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심문한 기록으로
조선시대 연구에 꼭 필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판형: 신국판(양장본) 분량: 전 90권(1세트)
정가: 3,000,000원 ISBN: 978-89-97565-16-0(SET)

21세기 최대 번역 프로젝트

조선 시대의 심문 진술 기록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은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00년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인본으로 권당 900면 내외, 총 30권으로 출간되었다. 원고 매수로는 약 15만 매(200자 원고지 기준), 책 수로는 총 90책(신국판 기준)에 해당하는 21세기 최대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 하나의 '실록(實錄)'

《추안급국안》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 심문한 기록이다. 심문 대상자로는 신분상으로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직역으로는 관료, 상인, 공장, 농민 등이 망라되었다. 이 책은 당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추안급국안》을 통해서 당대인들의 사회적 행동 양식 및 사고 방식들을 재복원할 수 있다.

잊혀진 과거를 찾아서

《추안급국안》은 다른 역사서에서 요약 압축된 사건이나 내용들이 심문과 진술 형태로 가감 없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각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 관계, 특히 베일에 싸여 있던 궁중 내부의 갈등 등 조선 후기 역사적 사건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숙종 대의 환국 정치에 대한 정치적 시각 교정과 영조 대의 무신란, 이어지는 탕평정치의 실체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번역된 《추안급국안》을 바탕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조선 후기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팔도 358개 고을
생생하게 펼쳐지는
강산과 사람들을 만나다

여지도서
輿地圖書

조선 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은
조선후기 인문지리서의 모범

역자: 변주승 김우철 이철성 문용식 서종태 이상식

조선 팔도 358개 고을별 목차

방리(坊里), 도로(道路),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형승(形勝), 성지(城池), 관직(官職), 산천(山川), 성씨(姓氏), 풍속(風俗), 궁실(宮室), 학교(學校), 단묘(壇廟), 총묘(塚墓), 공해(公廨), 제언(堤堰), 창고(倉庫), 물산(物産), 교량(橋梁), 역원(驛院), 목장(牧場), 관애(關阨), 봉수(烽燧), 누정(樓亭), 사찰(寺刹), 고적(古跡), 진보(鎭堡), 명환(名宦), 인물(人物), 제영(題詠), 한전(旱田), 수전(水田), 진공(進貢), 조적(糶糴),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稅), 봉름(俸廩), 군병(軍兵)

전 50권 / 신국판(양장) / 760,000원

흐름출판사
Tel: +82-63-287-1231 Fax: +82-63-287-1232
담당자: 이선정(+82-10-6310-7030) Homepage: www.heureum.com